

# 國語의 音節問題와 子音의 分布制約에 대하여

宋 喆 儀\*

## I. 序

音節이라는 단위는 우리가 쉽게 인식할 수 있고 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단위이긴 하면서도 그 本質的인 성격을 밝히기는 매우 어려운 것 중의 하나라고 알려져 있다.<sup>1)</sup> 音節에 대한 수많은 論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言語學的 機能이 무엇인가는 아직껏 분명하게 밝혀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音節이라는 단위는 言語學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던 것이긴 하면서도 그것이 言語學에서 꼭 필요한 단위인가에 대해서는 항상 의문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 의문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확실한 해답을 주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言語現象(특히 音韻現象)을 기술하는데 있어서 音節이라는 단위(혹은 개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부인할 수도 없다. 聲調라든가 強勢라든가 音長問題 등을 기술하는데 있어서는 音節이라는 단위를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문제들을 音節이 아닌 다른 言語學的 概念을 도입하여 기술할 수도 있겠으나 굳이 그래야만 할 필

\* 博士課程(檀國大 國文科)

1) Sloat, C., et. al. (1978), p. 59. "It has been said of the syllable that it is easy to identify but impossible to define."

Kim, young-key (1975), p. 272. "The existence of the syllable as a phonetic unit in any human language has long been recognized, although controversy over its exact nature still exists."

연적인 이유는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筆者는 音節이라는 단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本稿를 진행시키고자 한다. 國語의 경우에도 音長問題나 子音群單純化現象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音節이라는 단위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音節問題를 기술하려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어려운 문제가 있다. 音節을 音聲의單位로서만 받아들일 것이냐 音韻論的單位로서도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문제다. 이것은 生成音韻論이 基底와 表面이라는 두 개의 층위를 설정하는데서부터 비롯되는 문제인데, 音節을 基底에서부터 區分해야 할 것인지 音聲表面에서만 區分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音節이라는 것이 본래 다른 言語學的 單位들과는 달리 機能的인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言語의 意味라는 측면과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音聲的인 性格이 강한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音節을 音聲表面에서의 문제로만 다루게 되면 音韻現象의 기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게 된다. 그래서 筆者는 音節區分이 일단은 基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音節을 音聲的音節과 音韻論的音節로 區分해 보기로 한다. 前者가 音聲表面에서의 구체적인 音節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後者는 基底次元에서의 어느 정도 추상성을 띄는 音節을 의미한다. 音韻論的音節들은 여러가지 音韻規則의 적용과 音節調整을 거쳐서 音聲的音節로 실현된다. 音節을 音聲的音節과 音韻論的音節로 區分할 경우 國語의 音聲的音節構造와 音韻論的音節構造는 차이가 있게 된다.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 章에서 하기로 하겠다.

本稿는 이상의 音節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國語의 音節構造 및 그와 관련된 한두 가지 현상과 子音의 分布制約을 기술해 보고자 한다. 특히 國語에서 子音群이 用言이나 體言의 語幹末에서만 偏在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國語가 갖는 膠着語의 性格과 관련시켜 설명해 보고자하며 子音群單純化現象을 音節構造制約과 관련시켜 재검토 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子音의 分布制約이 言語學的 單位에 따라 어떻게 다를 수 있는가를 살펴 볼 것이고 끝으로 語幹末子音群과 관련된 한두 가지 문제를 논의해 볼 것이다. 音節構造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音節問題 전반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어서 前半部에서는 音節의 定義, 音節區分, 音節調整 등의 문제를 疎漏하게나마 다루어 볼 것이다.

## II. 國語의 音節構造

國語의 音節構造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音節構造制約과 관련된 현상들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먼저 音節의 定義, 音節區分(音節境界의 配定), 音節調整 등의 문제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2.1. 音節의 定義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바와 같이 音節이라는 단위는 機能的인 單位는 아닌듯하다. 뿐만아니라 言語의 意味라는 측면과도 전혀 관련이 없다. 音韻은 '意味를 區別시켜 줄 수 있는 最小의 單位'로서, 形態素는 '意味를 갖는 最小의 單位'로서 각각 그 기능이나 意味와의 관련 속에서 定義될 수 있는데 音節은 이런 측면으로의 정의가 불가능하다.<sup>2)</sup> 音聲(學)의 측면에서 音節을 定義했던 構造·記述言語學時代의 音節에 대한 定義들을 제외하면<sup>3)</sup> 音節에 대한 별다른 정의가 찾아지지 않는 것은 바로 音節의 이러한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우리는 音節을 그 構成上의 특징을 가지고 定義해 볼 수밖에 없다. 音節은 일단 分節音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즉 '分節音의 連續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分節音의 連續體라하여 어떤 것이나 다 音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그 속에는 하나의 音節核(成節音)이 포함되어 있어야

2)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는 Pulgram(1970), p. 20을 참조.

3) 音聲의 측면에서의 音節의 여러 定義에 대해서는 허용(1965), Kim, Young-key(1975), Pulgram (1970)을 참조.

한다. 이 두 가지 조건만으로 본다면 音節이란 ‘하나의 成節음을 포함하는 分節音의 連續體’라 할 수 있겠는데 이 定義는 너무 開放的인 감이 없지 않다. 어떤 조건을 추가시켜서 音節의 범위를 한정시킬 필요가 있다. 여기에 적절한 것이 境界要素들이다. 모든 統辭的인 境界要素들은 一次的인 音節區分의 역할은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基底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모든 統辭的인 境界要素와 形態素를 단위로 하여 부여되는 音節境界(音節境界가 부여되는 절차에 대해서는 2.2. 참조)까지를 포괄하여 音節을 다시 定義한다면 音節이란 ‘하나의 成節音만을 포함하는 두 境界要素 사이의 分節音의 連續體’라고 할 수 있겠다.<sup>4)</sup> 이 定義에 따르면 ‘바람이’는 基底次元에서는 ‘바—람—이’(#바\$람+이#)의 세 음절이 되겠고 表面의 次元에서는 ‘바—라—미’(\$바\$라\$미\$)의 세 음절이 되겠다. ‘#아래+스+너#’에서의 ‘#아래+’와 ‘+스+’은 비록 두 境界要素 사이의 分節音의 連續體들이긴 하지만 音節이 되지 못한다. 前者는 두 개의 成節音(母音)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고 後者는 成節音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 2.2. 音節區分 및 音節調整

音節區分이란 音節境界를 배정하는 절차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統辭的 區分이 一次的인 音節區分이 될 수 있다고 보는 本稿에서는 二 音節 이상의 形態素나 單語들에 대해서만 音節區分이 필요하다. 音節區分은 다음과 같은 音節境界配定規則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規則 1) 音節境界配定規則

$$\phi \rightarrow S \begin{cases} V \text{ --- } (G)V & (a) \\ V \text{ --- } C(G)V & (b) \\ VC \text{ --- } C(G)V & (c) \end{cases}$$

(V=음모 C=자음 G=w,y)

4) 이 定義는 Hooper(1972:537)의 定義를 참조한 것이다. “A syllable is defined as a sequence of segments between two syllable boundaries.”

形態素 내부에서 두 모음 사이에 세 자음이 연속되는 경우는 없으므로  $\phi \rightarrow \$ / VCC-C(G)V$ 와 같은 하위규칙은 필요 없다. 表記法 자체가 音節單位로 이루어 지고 있는 國語에서는 音節區分이 매우 용이한 편이다(사\$슴, 구\$름, 오\$리, 이\$야\$기...).<sup>5)</sup>

그런데 國語에서 形態素와 形態素, 또는 單語와 單語가 결합하여 쓰이게 될 경우 基底形에서 表面形으로의 도출과정에서 반드시 音節調整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때 形態素境界나 單語境界를 그대로 두고서 音節調整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겠다. 形態素境界나 單語境界가 音節境界로 대치되고 나서 音節調整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sup>6)</sup>

規則 2) 境界標識代置規則

$$\left. \begin{array}{l} + \\ \# \end{array} \right\} \rightarrow \$$$

물론 이 規則은 形態素境界나 單語境界를 필요로 하는 모든 規則이 적용된 다음에 적용되어야 한다.

規則 2)에 의해서 형태소경계나 단어경계가 음절경계로 대치되고 나면 音節調整이 이루어지게 된다.

規則 3) 音節調整規則

$$VC\$ (G)V \rightarrow V\$C(G)V \quad (a)$$

$$VCC\$ (G)V \rightarrow VC\$C(G)V \quad (b)$$

規則 1), 2), 3)이 적용되는 과정을 例를 통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 5) 現代國語 表記法에서 音節區分과 상반되는 하나의 예외적인 존재는 'ŋ'이다. 'ŋ'이 表記法에서 사라지게 됨으로써 表記法上으로는 'ŋ'이 音節頭位置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없게 되었으나 'ŋ'이 音節頭位置에서 완전히 制約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현대국어 표기법은 'čopi'(紙)를 'čop-i'(종이)와 같이 音節區分하여 표기하고 있으나 이것의 실제적인 音節區分은 'čopi'와 같이 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 6) 國語에서 音節調整은 句 내부에서만 이루어진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형태소경계와 단어경계만 음절경계로 대치시킨다.

- 例 1) /=말+은#하늘+이=/<sup>7)</sup>  
 =말+은#하\$늘+이= 規則 1)  
 =말\$은\$하\$늘\$이= 規則 2)  
 =말\$근\$하\$느\$리= 規則 3)  
 (말 근 하 느 리)

중간에 다른 音韻現象들이 개입되지 않을 때에는 規則 1), 2), 3)의 적용상에 아무런 문제점도 없어 보인다. 그러나 音節問題와 관련되는 音韻現象이 없을 수가 없다. 母音脫落, 母音(i, o, u)의 Glide化, 子音群單純化, 사이시옷문제 등이 音節問題와 관련이 있게 된다.

먼저 母音脫落이나 Glide化는 音節核의 상실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基底에서의 한 音節의 非音節化를 의미한다.

- 例 2) /#희+은# /                    /#즐기+어라#/  
 -----                                    #즐\$기+어\$라#                    規則 1)  
 #희+은#                                    -----                                    i脫落規則  
 -----                                    #즐\$기+어\$라#                    Glide化規則  
 \$희\$은\$                                    \$즐\$기\$어\$라\$                    規則 2)

위 例 2)에서 '\$은\$', '\$기\$어\$'와 같은 중간적인 형태들은 基底에서는 '은, 기'와 같이 하나의 音節을 이루고 있었으나 母音脫落이나 Glide化를 입게 됨으로써 音節核을 상실하게 되어 非音節化한 것들이다. 이 非音節化한 중간적인 형태들은 인접했던 다른 음절에 統合되게 되는데(\$희\$은\$→\$희\$은\$, \$기\$어\$→\$겨\$), 이 統合되는 과정을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가 문제다. 어떻게 보면 音節調整에 해당하는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다. 音韻規則의 적용으로 非音節化하게 된 音節들을 다른 음절과 統合시키는 일은 넓게 보면 音節調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長母音化나 子音群單純化 등을 생각하게 되면 여기서의 音節統合은 音節調整規則이 적용되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것은

7) 本稿에서 사용되는 境界標識은 다음과 같다. \$ : 音節境界, + : 形態素境界, # : 單語境界, = : 句境界.

일종의 音節調整現象이긴 하지만 音節調整規則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여기서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基底에서 주어진 境界標識의 처리다. '#회+은#'에서 '이'가 탈락하게 되면 '#회+ㄴ#'이 되는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회\$'이 되기 위해서는 중간에 개재되어 있는 境界標識를 삭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境界標識 削除規則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規則 4) 境界標識 削除規則

$$[+boundary] \rightarrow \phi / \left\{ \begin{array}{l} V-C[+boundary] \quad (a) \\ [+boundary](C)(G)-V \quad (b) \end{array} \right.$$

이 規則이 설정됨으로써 例 2)에서의 문제는 해결된다. 이 規則은 母音 脫落規則이나 Glide化規則보다는 뒤에 적용되며 規則 2)보다는 앞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例 3) /#회+은#/	/#즐기+어라#/	
_____	_____	
#회+ㄴ#	#즐\$기+어\$라#	規則 1)
_____	_____	i脫落規則
#회ㄴ#	#즐\$기어\$라#	Glide規則
\$회ㄴ\$	#즐\$기어\$라#	規則 4)
_____	_____	規則 2)
[회]	[즐겨라]	規則 3)

境界標識 削除規則은 사이시옷문제, 長母音化, 子音群單純化 등과도 관계가 된다.

例 4) /#아래+스+니#/	
#아\$래+스+니#	規則 1)
#아\$래+ㄷ+니#	中和規則
#아\$래+ㄴ+니#	子音同化
#아\$래ㄴ+니#	規則 4)
\$아\$래ㄴ\$니\$	規則 2)
_____	規則 3)
[아랜니]	

여기에서도 사이시옷이 앞 음절에 통합되기 위해서는 역시 사이시옷 앞의 境界標識를 삭제해야만 한다. 따라서 規則 4)는 이런 경우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단 이 규칙이 中和規則이나 子音同化規則보다 앞서서 적용되어야 하는지 뒤에 적용되어야 하는 건지는 분명하지 않다. 어느 쪽으로 보아도 상관은 없다.

國語의 長母音化를 기술하는데 있어서도 境界標識의 처리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기+어→기어~꺠, 쏘+아→쏘아~쑈, 구+어→구어~꺠’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母音 ‘i, o, u’가 母音 ‘ə/a’앞에서 수의적으로 Glide化하게 되면 基底에서의 두 音節이 하나의 음절로 統合되면서 長母音化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때의 長母音化는 Glide化로 인한 한 음절의 非音節化에 대한 報償的 長母音化라고 볼 수 있다(李秉根 1978). 그런데 여기서도 音節統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간에 개재했던 境界標識를 삭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規則 4)가 이 문제를 적절히 해결해 주기는 하는데, Glide化와 長母音化가 繼起的으로 차례차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同時的으로 일어나는 것이라면 規則 4)의 적용순서가 문제된다. Glide化規則과 長母音化規則이 동시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境界標識削除規則도 이들과 동시에 적용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혹은 Glide化規則과 長母音化規則이 別個의 두 規則이 아니라 單一規則이라고 한다면(李秉根 1978:5), 그 規則 속에는 境界標識의 삭제 문제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規則 5) i, o, u → ə/a → y, w φ ə/a:

1 2 3    1 2 3

〔(Glide化) (長母音化)〕

母音脫落에 의한 長母音化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子音群單純化問題는 다음 3章에서 다루기로 한다.

國語에서의 音節調整은 모든 音韻規則이 적용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句를 단위로 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sup>8)</sup> 경우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는 듯하다. 語幹形態素와 語尾形態素 사이에서는 音節調整이 거의 필수적으로 일어난다. /먹+으니/→[머그니], /떡+을/→[떠글]. 그러나 수식어와 피수식어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의성이 있는 듯하다. /흰#오리/→[흰오리]~[희노리], /꼭#오너라/→[꼭 오너라]~[꼬고너라]. 물론 句와 句 사이에서는 音節調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는=안간다/→\*[나느 난간다]. 따라서 國語에서의 音節調整은 句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데, 形態素와 形態素가 연결되는 위치에서는 필수적으로 일어나고 單語와 單語가 연결되는 위치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의성을 띤다고 할 수 있겠다.

### 2.3. 國語의 音節構造

國語의 音節構造는 (C)V(C)로 볼 수도 있고 (C)V(C(C))로 볼 수도 있다.<sup>9)</sup> 前者가 音聲表面에서의 音節構造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後者는 基底次元에서의 音節構造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다. 音節을 音聲的音節과 音韻論的音節로 區分하는 本稿의 태도에 따르면 前者는 音聲的音節構造가 되겠고 後者는 音韻論的音節構造가 되겠다. 基底次元에서의 音節構造와 音聲表面에서의 音節構造가 이와같이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은 音聲表面에서는 子音群이 허용되지 않지만 基底에서는 子音群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音節構造라 했을 때는 音聲的音節構造를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國語에서 音聲的音節構造上으로는 音節頭位置에서건 音節末位置에서건 子音群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音節構造上的 制約 때문에 國語에

8) Kim, Young-Key(1975). p.288. "On the phonetic level, however, all elements within a phrase are pronounced in liaison;"

9) 許雄(1965:212) 및 Kim, Young-Key(1975:281) 참조. 許雄(1965)는 國語의 音節構造를 (C)V(C)로 보고 있는 셈이고, Kim(1975)는 國語의 音節構造를 (C)V(C(C))로 보고 있는 셈인데, 前者는 構造·記述音語學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後者는 生成音韻論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Kim(1975)는 이것이 國語의 基底音節構造라고 보고 있는 듯하다.

는 子音群單純化現象이 있게 되며, 基底에서조차도 子音群이 극히 한정된 위치에서만 나타나게 된다. 이 두 가지 문제는 다음 章에서 다루기로 한다.

音韻論의 音節構造上으로는 音節頭位置에서만 子音群이 制約되고 音節末位置에서는 制約되지 않는 셈이다.

이러한 音節構造上의 특징 외에 音節構成上의 특징으로서는 이미 상식화된 이야기지만 어떤 子音도 音節核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流音 ‘ㄹ’은 間接同化(流音化)의 同化主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나 母音 ‘i’를 탈락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母音的인 성격을 띠는 경우가 있으면서 音節構成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질 못하다. 따라서 國語에서 子音, 母音의 分類가 가장 적절하게 쓰이는 것은 바로 이 音節構成에 있어서이다.

滑音(혹은 半母音) ‘w, y’는 音節構成에 있어서 子音的인 성격도 母音的인 성격도 띠지 못한다. 音節核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는 子音的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音節構造上으로 \$CCV\$는 불가능하지만 \$CGV\$는 가능한 것을 보면 子音的인 性格을 된다고 볼 수도 없다. 글자 그대로 중간적인 존재인 듯하다. 音節構成에 있어서 單母音과 二重母音이 거의 같은 단위로 인식되는 것은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 III. 音聲的 音節構造와 관련된 現象

#### 3.1. 基底에서의 子音群分布制約

우리가 흔히 사용해 왔던 ‘子音群’이라는 용어도 그 개념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두 개 이상의 子音이 연속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여 모두 다 子音群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살구’와 ‘흙’에서 똑 같이 두 子音 ‘ㄱㅇ’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살구’에서의 ‘ㄹ’을 子音群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울고’에서

의 ‘리’도 子音群이라고 인식되지는 않는다. 그러면 ‘흙’에서의 ‘리’만이 子音群으로 인식되고 ‘살구’나 ‘울고’에서의 ‘리’는 子音群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兩者 사이에 분명히 어떤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前者가 두 子音 사이에 아무런 경계요소도 개입시키지 않고 있는 반면 後者는 두 子音 사이에 경계요소를 개입시키고 있다는 것이 兩者의 차이점이랄 수 있다. 이 차이점에 의해서 兩者가 區分된다고 한다면 子音群이란 ‘중간에 아무런 경계요소도 개입시키지 않은 子音들의 연속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sup>10)</sup>

國語의 경우 音聲的 音節構造制約때문에 音聲表面에서는 子音群이 존재하지 않는다. 基底의 次元에서만 子音群이 가능할 수 있는데, 이 때에도 子音群에 포함될 수 있는 子音의 數는 최대한으로 둘을 넘지 못한다. 子音群의 최대 허용 범위가 2개의 子音으로 국한되는 것도 音節頭位置에서나 音節末位置에서나 하나씩의 子音밖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音聲的 音節構造制約 때문이다.

國語의 子音群問題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사항은 基底의 次元에서 子音群이 허용된다고는 하지만 子音群이 나타나는 위치가 극히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語頭位置에서의 子音群制約은 알타이 諸語의 共通特質의 하나라 하여 누누히 강조되어 온 바이지만, 우리는 語頭位置가 아닌 다른 位置에서의 子音群制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겠다. 편의상 形態素를 단위로 해서 보았을 때 國語의 子音群은 用言이나 體言의 語幹末位置에서만 나타난다(흙, 없-, 맑-, ...). 즉 國語에서 子音群은 語頭位置에서만 制約되는 것이 아니라 用言이나 體言의 語幹末이 아닌 모든 위치에서 制約되는 것이다. 우리는 文法形態素들에서 子音群이 나타나는 경우를 찾아 볼 수 없다. 다른 모든 位置에서는

10) Pulgram(1970:79)는 子音群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a series of consonants belonging to the same syllable be called a CLUSTER, and one that divided among adjoining syllables a SEQUENCE."

子音群이 制約되면서 用言이나 體言의 語幹末位置에서만 유일하게 子音群이 허용되는 것은 무엇때문일까? 이것을 音節問題와 결부시키지 않고 생각하면 우연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音節問題와 결부시켜서 생각하게 되면 그럴만한 이유를 찾아 볼 수 있을 듯하다. 國語에서 用言이나 體言의 語幹末이라는 위치는 語尾形態素의 연결이 보장되는 위치이다. 이는 다시 音節問題의 관점에서 본다면 基底에서 表面으로의 도출 과정에서 音節調整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위치이기도 하다. 音聲의 音節構造上으로는 子音群이 전혀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基底에서 用言이나 體言의 語幹末에만은 子音群이 허용되는 것은 語幹末이라는 위치가 音節調整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위치라는 사실과 무관할 수 없다고 믿어진다. 國語가 만약 曲用이나 活用을 보여 주지 않는 언어였다고 한다면 語幹末이라는 한정된 위치에서만 子音群이 나타나는 일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曲用이나 活用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語尾形態素들이 모두 子音으로 시작되는 것들만 있었다고 한다면 語幹末에서조차도 子音群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母音으로 시작되는 語尾形態素가 많이 있다는 것은 語幹末位置에서 子音群이 가능케 된 또 하나의 부수적인 조건이다.

國語에서 子音群이 用言이나 體言의 語幹末에서만 나타나게 된 것이 이 위치가 音節調整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위치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다시 國語가 曲用이나 活用을 보여 주는 膠着語라는 사실과 관련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國語에서 音聲的 音節構造上으로는 子音群이 허용되지 않는데도 基底次元에서의 用言이나 體言의 語幹末에서만은 子音群이 나타나게 된 것은 國語가 膠着語의 性格을 띄고 있기 때문이라고 결론할 수 있겠다.

用言에 비해 固立語의 性格이 강한 體言의 경우에 語幹末子音群이 점차 단순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과 漢字語에서 子音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의 論議를 위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리라고 믿는다.

### 3.2. 子音群單純化

子音群單純化現象은 音節 內部에서 2개 이상의 子音이 연속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는 音韻的音節構造制約으로부터 비롯되는 현상인데 엄격히 區分하자면 國語의 子音群單純化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基底에서부터 형성되어 있던 子音群을 單純化시키는 語幹末子音群單純化이고(밖+고→밭꼬~밥꼬, 훑+고→훈꼬), 둘째는 母音脫落으로 인하여 중간적인 구조로서 발생하는 子音群을 單純化시키는 경우이고(울+읍니다→울ㅂ니다→읍니다)<sup>11)</sup>, 셋째는 사이시옷의 첨가로 발생하는 子音群을 單純化시키는 경우이다(봄+ㅅ+비→봄ㅅ비→봄ㅂ비→봄ㅍ비). 첫번째의 子音群單純化에 있어서는 앞 子音이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 뒤의 자음이 탈락되는 경우도 있으나 두번째 경우에 있어서는 항상 앞자음 ‘ㄱ’이 탈락한다. 세번째 경우에 있어서는 첨가되었던 사이시옷이 항상 탈락한다. 이 세 가지 경우의 子音群單純化는 어떻게 보면 자기 성격을 달리하는 현상들인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으나 音韻的 音節構造制約때문에 비롯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는 모두 하나의 규칙으로서 설명되어야 할 것들이다. 그런데 두번째 경우와 세번째 경우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子音群單純化가 되기 위해서는 중간에 개재했던 境界標識를 삭제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앞에서 우리는 子音群을 ‘중간에 아무런 境界요소도 개입시키지 않은 子音들의 연속체’라고 정의 했었다. 이 정의에 따른다면 ‘울+은→울+ㄴ’에서의 ‘ㄱ+ㄴ’은 子音群이 될 수 없다. ‘봄+ㅅ+비’에서의 ‘ㅅ+ㅅ’이나 ‘ㅅ+ㅂ’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들을 子音群單純化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들에서 子音群이 형성될 수 있도록 境界標識를 삭제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설정했던 規則 4) (境界標識削除規則)는 母音脫落이나 Glide化에 이어 音節統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경우까지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規則 4)를 다음과 같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

11) 이런 경우의 子音群單純化에 대해서는 李秉根(1981)을 참조.

## 規則 4') 境界標識削除規則

$$[+boundary] \rightarrow \phi / \begin{cases} V-(C)[+boundary] & (a) \\ [+boundary](C)(G)-V & (b) \\ C-C[+boundary] & (c) \end{cases}$$

이 規則 4')는 母音脫落規則이나 Glide化規則보다는 나중에 적용되어야 하고 子音群單純化規則보다는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sup>12)</sup> 이 規則은 '올+은→올+니'의 'ㄱ+ㄴ'에서 '+'를 삭제시켜 주게 되며 '봄+ㅅ+비'의 'ㅍ+ㅅ'에서 '+'를 삭제시켜 주게 된다. 그리하여 'ㄱㄱ' 'ㅍㅅ'과 같은 중간적인 구조로서의 子音群을 형성시켜주는 것이다. 사잇소리에서 뒷 쪽의 경계표지를 삭제시키지 않고 앞 쪽의 경계표지를 삭제시키는 것은 國語에서 音節을 단위로 하든 형태소를 단위로 하든 頭位置에서보다는 末位置에서 子音群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境界標識削除規則을 설정하게 되면 위에서의 세 가지 子音群單純化는 다음과 같은 하나의 規則으로서 기술될 수 있다.

## 規則 5) 子音群單純化規則

$$C \rightarrow \phi / \left\{ \begin{array}{l} C- \\ -C \end{array} \right\} \left\{ \begin{array}{l} \# \\ +C \end{array} \right\}$$

환경에서 '+C'는 '\$C'여도 상관이 없다. 세 가지 경우의 子音群單純化를 포괄하여 하나의 규칙으로 설정할 경우엔 子音群 중 앞 子音이 脫落하는 경우와 뒷 자음이 脫落하는 경우를 規則 속에 정확히 표시할 수가 없다.

세 가지 경우의 子音群單純化를 例를 통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例 5) /#홀+고#/	/#올+옴니다#/	/#봄+ㅅ+비#/	
-----	#올+옴\$니\$다#	-----	規則 1)
-----	#올+비\$니\$다#	-----	i脫落規則
-----	#올비\$니\$다#	#봄+ㅅ+비#	規則 4')

12) 이 規則 4')가 長母音化와 관련되면 적용순서가 달라질 수 있다. 2.2. 참조.

-----	-----	#뽁ㄷ+비#	中和規則
#홀+꼬#	-----	#뽁ㄷ+베#	硬音化規則
#홀+꼬#	#우ㄷ\$니\$다#	#뽁\$베#	規則 5)
\$홀\$꼬\$	\$움\$니\$다\$	\$뽁\$베\$	規則 2)
-----	-----	-----	規則 3)
[홀 꼬]	[움 니 다]	[뽁 베]	

위 例에서 規則 4')는 硬音化規則 다음에 적용되어도 상관 없다. 脫落規則도 中和規則이나 硬音化規則과 적용상의 순서에 관계가 없다. 그러나 그밖의 경우는 위의 規則 적용순서를 지켜 주어야 한다.

#### IV. 子音의 分布制約

子音의 分布制約은 言語學的 單位들을 區分하여 따져 볼 필요가 있다. 單語, 形態素, 音節을 區分하여 子音의 分布制約을 살펴 보고자 한다.<sup>13)</sup> 子音들 중에서 分布上의 제약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ㄷ'이다. 이 'ㄷ'은 語頭에서는 물론 形態素頭位置에서도 완전히 制約된다. 중세국어에서는 形態素頭位置에서는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으나(—히—), 현대국어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音節頭位置에서도 'ㄷ'이 制約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表記法上으로는 音節頭位置에서도 'ㄷ'이 나타나지 않는데, 音聲表面에서는 音節頭音으로의 실현이 어느 정도 가능해 보인다. '종이'에서의 'ㄷ'이 앞 음질의 終聲으로 실현되는지 뒤 음질의 初聲으로 실현되는지 판단하기가 애매하기는 한데, 初聲으로의 실현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은 듯하다. 그러나 다른 자음들처럼 初聲으로의 실현이 분명하게 인식되지는 않는다.

'ㄱ'은 語頭位置에서만 制約된다. 形態素의 頭位置에서는 制約된다고

13) 子音의 分布制約 및 連結制約에 대해서는 許雄(1965), 鄭喆(1969), 李承宰(1980)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특히 李承宰(1980)은 音韻現象과의 관련 속에서 子音의 連結制約을 세밀히 검토하고 있다.

볼 수 없다(一翕一). 語頭에서의 ‘ㄱ’의 制約도 본래적인 것이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중세국어 이후의 역사적 발달의 결과라고 보여진다(려울 爲 翹: 訓民正音 用字例).

‘ㄱ’이나 ‘ㄷ’이 語頭에서 制約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과도 관련이 있을 듯하다. 국어의 子音連結에 있어서 ‘ㄱ’이나 ‘ㄷ’은 다른 자음 뒤에서는 나타날 수 없다. 즉  $C_1C_2$ 의 자음연결에서  $C_2$ 의 자리에 ‘ㄱ’이나 ‘ㄷ’이 나타날 수 없는 것이다(단,  $C_1$ 이 ‘ㄱ’일 때는  $C_2$ 가 ‘ㄱ’일 수 있다). 이것은 결국 국어의 ‘ㄱ’이나 ‘ㄷ’은 子音 다음에서는 실현될 수 없다는 子音連結上的 制約이 있음을 말하는 것인데 이 子音連結上的 制約이 語頭에서의 ‘ㄱ, ㄷ’의 制約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音韻現象에 있어서 單語境界가 子音과 같은 구실을 하는 경우를 알고 있다(流音化, 子音群單純化, 中和等). 語頭位置란 바로 이 單語境界와 인접하는 위치이다. 따라서  $C_1C_2$ 에서  $C_2$ 의 자리에 ‘ㄱ’이나 ‘ㄷ’이 올 수 없다면 # $C_1$ 에서  $C_1$ 의 자리에 ‘ㄱ’이나 ‘ㄷ’이 올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겠다.

‘ㅎ’이 體言語幹末位置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현대국어에서) 상식화되어 야기인데 이 ‘ㅎ’은 音節末音으로는 전혀 실현되지 못한다. 音節의 音節構造上으로 본다면 ‘ㅎ’은 音節末位置에서 완전히 制約되는 셈이다.

그밖에 音聲的 音節構造上으로 音節末位置에 나타날 수 없는 子音들로서는 ‘ㄱ, ㄷ, ㅌ, ㄷ, ㅌ, ㅍ’과 硬音系列의 子音들이 있다. 소위 中和現象에 관련되는 子音들을 모두 音節末位置에서 制約되는 셈이다. 이들 중에서도 硬音系列의 分布制約은 좀더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形態素 이상의 단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도 그 末位置에서 나타나는 硬音은 ‘ㄱ, ㅍ’ 뿐이다(꺾一, ㅍ, 잇一, 一잇一). 그런데 이들조차도 사실은 역사적 발달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들이다(꺾一>꺾一, ㅍ>ㅍ, 잇一, 잇一>잇一, 一어잇一>一잇一). 語頭位置에서의 硬音의 發達에



대해서는 國語史에서 많이 언급되어 왔던 것이지만, 語幹末, 혹은 形態素末 位置에서의 硬音들조차도 역사적 발달의 결과라는 사실은 國語가 起原的으로는 硬音系列의 子音을 갖지 않았던 언어였다(李基文 1972 : 91)는 것을 말해 주는 또 하나의 간접적인 증거가 아닌가 싶다.

끝으로 子音의 連結制約과 관련하여 國語의 語幹末子音群問題를 잠깐 살펴 보고자 한다. 表記法上으로 본다면 國語에 ‘ㄱ, ㅍ’과 같은 子音群이 있다(ㄱ, ㅍ, ㄲ, ㅍㅍ). 그런데 國語에는 硬音化現象이 있어서 폐쇄음 다음의 子音들은 반드시 硬音化하게 된다. 그 결과 현대국어의 형태소 내부에서  $C_1C_2$ 의 子音連結이 있을 때  $C_1$ 이 폐쇄음이면  $C_2$ 는 반드시 硬音이어야 한다. 國語의 硬音化는 거의 필수적인 규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子音連結制約에 따른다면 子音群 ‘ㄱ, ㅍ’은 /ks/, /ps/가 아니라 /ks’/, /ps’/이어야 한다. 실제로 ‘ㄱ, ㅍ’의 ‘ㅅ’이 [s]로 실현되는 경우는 전혀 없다. 再構造化란 말을 여기서 쓸 수 있다면 국어의 子音群 ‘ㄱ, ㅍ’은 ‘ㄱㅅ, ㅍㅅ’으로 再構造化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이 때의 再構造化는 硬音化現象이 形態素 內部에서 일어난 결과라 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 基底形을 /ks/, /ps/로 잡고 이들이 硬音化規則의 적용을 받아서 [ks’] [ps’]로 실현된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이런 논리가 그대로 가능하다면 우리는 口蓋音化와 관련하여 ‘天’의 基底形을 /tʰyən/으로 잡아도 무방하게 되며 ‘꺾-’의 基底形을 /k’əsk/으로 잡아서 안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어떤 音韻規則이 形態素 內部에서 적용되게 되면 그것은 결국 再語彙化 내지는 再構造化를 초래케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꺾- > 꺾-’에서의 語幹末子音群의 再構造化도 결국은 일련의 規則들이 形態素 內部에서 적용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볼 때 국어의 子音群 ‘ㄱ, ㅍ’은 /ㄱㅅ/, /ㅍㅅ/으로 再構造化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된다.

## V. 結 語

本稿는 國語의 音節問題와 그에 관련된 및 가지 현상을 考察해 보았다. 國語의 音節問題는 비교적 간단히 기술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本論을 要約하여 結論을 삼고자 한다.

1) 本稿는 音節을 音聲의 音節과 音韻論의 音節로 區分하였다. 音聲의 音節이 音聲實現 단계에서의 音節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音韻論的 音節은 基底次元에서의 音節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音節을 이와같이 두 가지로 區分한 이유는 音韻現象의 기술을 위해서는 基底次元에서부터 音節區分이 이루어지는 것이 편리하리라고 생각되는데 基底次元에서의 音節과 音聲表面에서의 音節이 相異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音節構造上에서 그러하다. 音韻論의 音節들은 音韻規則의 적용과 音節調整을 거쳐 音聲의 音節로 실현된다.

2) 音節의 定義를 '하나의 成節音만을 포함하는 두 경계요소 사이의 分節音의 連續體'라고 내렸다. 音節境界만을 가지고 定義하지 않고 (Hooper, 1972), 다른 경계요소들까지를 포괄하여 音節은 定義한 것은 다른 統辭的 境界들이 一次的인 音節區分の 기능을 갖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3) 音節境界의 배정은 形態素를 단위로 하여 規則 1)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形態素境界나 單語境界를 필요로 하는 모든 규칙들이 적용되고 나면 형태소경계나 단어경계가 音節境界로 대치되고 音節調整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音節調整은 형태소경계나 단어경계가 있던 자리에서만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音節調整은 句 내부에서만 일어나는 것으로 보았다.

4) 國語의 音節構造는 (C)V(C)로 볼 수도 있고 (C)V(C(C))로도 볼

수 있는데 前者를 音聲的音節構造, 後者를 音韻論的音節構造라고 보았다. 國語에서 音聲的音節構造와 音韻論的音節構造가 相異하게 되는 이유는 音聲表面에서는 子音群이 허용되지 않지만 基底에서는 子音群이 허용되기 때문이었다. 國語의 音聲的音節構造上으로는 子音群이 허용되지 않는데 이러한 音節構造上的 制約때문에 國語에 子音群單純化現象과 基底에서의 子音群의 偏在現象이 있게 된다고 보았다.

5) 國語의 경우 子音群은 基底에서만 가능한데 그때에도 子音群은 用言이나 體言의 語幹末이라는 극히 한정된 위치에서만 나타난다. 子音群이 이와같이 用言이나 體言의 語幹末位置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이 위치가 나중에 音節調整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위치이기 때문인데 그것은 다시 이 위치가 語尾形態素들의 연결이 보장되는 자리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用言이나 體言의 語幹末이라는 위치가 語尾形態素들의 연결이 보장되는 자리라는 것은 결국 국어가 膠着語의 性格을 갖는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音聲的音節構造上으로 子音群이 制約되는데 불구하고 基底에서 用言이나 體言의 語幹末位置에서만은 子音群이 나타나는 것은 國語가 膠着語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6) 國語의 子音群單純化에는 語幹末子音群單純化, 母音脫落으로 인하여 중간적인 구조로서 발생하는 子音群의 單純化, 사이시옷의 첨가로 발생하는 子音群의 單純化,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경우가 하나의 規則(規則 5))으로써 기술될 수 있다고 보았다.

7) 子音의 分布制約에서 ‘ㄱ’과 ‘ㄷ’이 語頭에서 制約되는 것은 ‘ㄱ’이나 ‘ㄷ’이 다른 자음 다음에 연결될 수 없다는 子音連結制約과 같은 성질의 것이라고 보았다.

8) 語幹末子音群 중에서 ‘ㄲ’과 ‘ㅃ’은 ‘ㄱㅃ’ ‘ㄷㅃ’으로 再構造化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音韻規則이 形態素 內部에 적용되게 되면 그것은 결국 再語彙化 내지는 再構造化를 초래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이었다. ‘ㄲ, ㅃ’이 ‘ㄱㅃ, ㄷㅃ’

으로 재구조화된 것은 이들이 형태소 내부에서 硬音化規則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參 考 文 獻

- 金完鎭(1972), “形態論的 懸案의 音韻論的 克服을 爲하여,” 東亞文化 11.
- 李基文(1972), 國語音韻史研究, 韓國文化研究叢書 13(1978, 塔出版社).
- 李秉根(1975), “音韻規則과 非音韻論的 制約,” 國語學 3.
- \_\_\_\_\_ (1977), “子音同化의 制約과 向方,” 李崇寧先生古稀紀念國語國文學論叢.
- \_\_\_\_\_ (1978), “國語의 長母音化와 報償性,” 國語學 6.
- \_\_\_\_\_ (1981), “유음탈락의 음운론과 형태론,” 한글 173.174호 어우름.
- 李承宰(1980), “求禮地域語의 音韻體系,” 國語研究 45.
- 鄭 喆(1969), “국어 음소결합의 GAP에 관한 研究.” 論文集(慶北大), 第十三輯.
- 許 雉(1965), 國語 音韻學, 正音社.
- Hooper, J.B. (1972), “The syllable in phonological theory,” *Language* 48.
- Kahn, D. (1976), *Syllable based Generalization in English Phonology*,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 Club.
- Kim, Chin-W (1972), “Linguistic evidence an implications of the syllable,” 한글 149.
- Kim, Young-Key (1975). *Korean Consonantal Phonology*, Seoul: pagoda press.
- Pulgram, E. (1970), *Syllable, Word, Nexus, Cursus*, The Hague-Paris: Mouton.
- Sloat, C. et. al. (1978), *Introduction to Phonolog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